

진드기 감염 발견 시 간단 대처요령



임 표
경기도수의사회 학술위원회



정 우 필
경기도수의사회 학술위원회



윤 상 근
경기도수의사회 학술위원회

최근에 뉴스에서 보호자가 애완동물에 감염된 진드기와 접촉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. 반도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진드기가 전역에 걸쳐 서식하며 인간과 동물에 감염 시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진드기 흡혈시 타액으로 감염되는 보렐리아균(Borrelia) 감염 라임병(Lyme disease), 리켓치아성 질병(Rickettsiarickettsii) 록키산 홍반열(Rocky Mountain Spotted Fever), 작은소참진드기(Haemaphysalis longicornis)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증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,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), 원충성 질병 바베시아 감염증(Babesiosis) 등 다양한 질병이 사람과 애완동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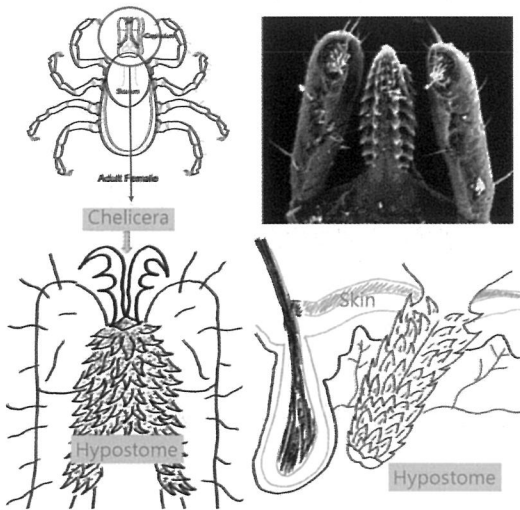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집게모양빨(Chelicera, 숙주의 피부 조직을 자르는 역할) 구원추모양빨(hypostome, 톱니모양 이빨 구조로 매달리는 역할)동물의 피부에 감염된 진드기는 피부 조직을 자르고 밀착하여 구원추모양빨을 속으로 파문고 흡혈하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

애완동물의 털과 피부에서 진드기를 발견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질병의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무턱대고 손으로 잡아서 떼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 진드기는 흡혈 시 머리 부분을 최대한 피부에 밀착하고 주둥이의 집게모양빨(Chelicera, 숙주의 피부 조직을 자르는 역할), 구원추모양빨(Hypostome, 톱니모양 이빨 구조로 매달리는 역할)을 이용하여 숙주의 피부를 뚫고 매달립니다(그림 1 참조). 그러므로 진드기를 떼어낼 때는 진드기 머리 부분과 피부 사이에 핀셋(Tweezer, 끝 부분이 얇고 예리한 기구, 그림 2 참조)이나 진드기 스푼(Tick Spoon, 그림 2 참조)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흡혈중인 진드기에 소독약(알코올, 포비돈등), 뜨거운 물, 윤활제등을 뿌리거나 진드기를 떼어낼 때 몸통을 쥐고 떼어내면 진드기가 내뿜는 타액과 흡혈된 혈액이 동시에 피부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진드기의 주둥이 부분이 피부에 매달린 채 남아서 지속적인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진드기를 손으로 직접 만지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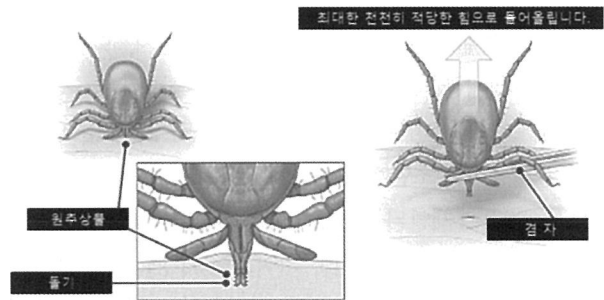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진드기를 발견하면 피부에 밀착된 면에 최대한 가까이 검자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집고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.